

### 나들이 할 때 우산

6월 10일 (음 5월 15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17~27℃
목포	17~24℃
여수	17~23℃
완주	17~25℃
해남	16~27℃
해남	16~25℃
해남	16~26℃
해남	15~25℃
해남	15~27℃
해남	16~24℃
해남	16~26℃
해남	17~28℃
해남	15~27℃
해남	16~28℃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5~2.5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서풍  
파고 1.0~2.5m

▲해돋이 05:18 ▲해질 19:46  
▲달출 18:33 ▲달질 03:34

목포 밀물 < 01:04 썰물 < 06:29 여수 밀물 < 07:47 썰물 < 01:59  
> 12:53 > 18:19 > 20:33 > 13: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월)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날씨						
최저/최고	18/27	19/29	19/29	18/29	18/26	19/28

## 광주·전남 오늘 5~10mm 비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0일 오후부터 휴일인 11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5~1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하지만 온도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과 휴일의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오전 한 때 서·남해안 모든 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고,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파도가 2~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 “무죄 확정뒤 26년간 전과자 방치책임 국가가 배상하라”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유죄' 전과기록을 고치지 않았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9일 절도죄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최모씨가 "26년간 경찰 자료에 전과가 남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씨의 나머지 금액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절도죄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2심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경찰 및 검찰 전과 자료에는 최씨의 1심 판결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최씨는 2004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전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전과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 차별적세 작품 각색 세계적 작곡가 영전에 이메일 조문

세계적인 작가와 작곡가가 지난 6일 별세한 원로 극작가 차범석 씨에게 이메일 조문을 보내왔다.

차씨의 대표작 '산발'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댄싱 섀도우'(Dancing Shadows) 각색을 맡은 칠레 출신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과 작곡가로 참가한 '알란 파스스 프로젝트'의 팝 아티스트 에릭 울프슨이 각각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해왔다.

9일 '댄싱 섀도우' 제작사인 신시뮤지컬컴퍼니에 따르면 도르프만은 조문에서 "선생님의 타계는 한국 문화계의 큰 손실"이라며 "각색한 대본에 대한 원작자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돼 아쉽지만 선생님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캐릭터를 잘 표현해 세계 관객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울프슨은 "유머 있고 겸손하며 친구 같았던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유작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제가 무겁다"고 적었다.

고인과 도르프만, 울프슨은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현지 배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댄싱 섀도우' 워크숍에 함께 참가했다.



# 월드컵 축제 대~한민국이 들끓는다

## 잠을 반납한 거리...광주·전남 곳곳 응원 열기 백화점·영화관 한국경기 생중계 마케팅 활발

독일 월드컵 열풍으로 광주·전남이 들끓고 있다. 고대하던 '꿈의 구현'이 9일 밤 11시30분(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것이다.

◇월드컵 열기 '후끈' = 지역민은 9일 밤 화려하게 펼쳐진 2006독일월드컵 개막식을 지켜보며 한국 대표팀의 4강진과 화현을 고대했다. 아파트와 주택가에는 개막식과 이어 열린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 등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10일 새벽까지 불켜진 집이 많았다.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의 화려한 기술에 감탄해 절로 나온 환호성도 곳곳에서 들렸다. 광주와 전남지역 점집방과 콘도에는 개막식과 개막전을 함께 보려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단체 응원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거리응원 '풍성' = 광주의 태극전사

## “6·15 민족통일대축전’ 자원봉사 활동해요”



조성주군이 광주시 서구문화센터 앞에서 자원봉사단 모집 포스터를 가리키며 북한 사람들을 안내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최연소 화정남초 5학년 조성주군 北 친구들에 광주 곳곳 소개할래요

“아직 어리지만 통일을 향한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

'6·15 민족통일대축전' 최연소 자원봉사단인 조성주(11·광주 화정남초등학교 5학년)군은 요즘 북한말 공부에 한창 빠져있다.

축전 기간 동안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콧방(도시락)' '가라지 빵'(도너츠) 등 북한에서 쓰는 말로 대화하고 싶어한다.

조 군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월드컵 경기장 등 축전이 열리는 주요 장소도 인터넷을 뒤지며 수첩에 메모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컨벤션센터 등에 대해 물어보면 어른들 못지 않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자신이 있다.

북한 어린이들을 만나면 '아기 염소' 노래를 가르쳐 줘 함께 부르고,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도 보여줄 계획이다. 북한사람들을 데리고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견학도 하고 싶고, 공연에 가서 함께 놀이거구도 타고 싶고.

조 군은 지난달 28일 누나의 심부름으로 서구문화센터에 갔다가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도덕 교과서에서 통일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모집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원봉사단의 인기채 운영팀장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봉사단으로 신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어린이가 직접 자원하고 나선 경우는 처음"이라며 "개막식과 합동예술공연 등의 행사 안내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고령 '6·25 참전용사' 오용섭씨 적(?)과의 조우...안전관리 맡겠다

6·25 참전용사가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자원봉사단으로 나서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를 흔들다.

민족통일대축전의 자원봉사단 900여명 중 최고령자인 오용섭(77·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무진복지당 영어강사)씨는 56년 만에 북한동포들을 재회한다는 설명에 감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때는 철축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 총을 겨누며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었지만, 이제는 한반도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6·25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2년, 광주 송일고 3학년이 재학 중이던 오씨는 학도병으로 군대에 자원했다. 제주도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받은 뒤 배치된 부대는 미 40사단 수색중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북한의 '김일성 고지'와 '스탈린 고지'를 탈환

## 광주공항 개항이후 첫 北 손님맞이 150여명 고려항공이용 14일 도착·17일 출발

지난 1948년 개항한 광주공항이 사상 처음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오는 북측 손님맞이를 맞는다.

9일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북측 인사 150여명이 오는 14일 오전 6:15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고려항공 전용비행기를 이용,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측 인사들의 대규모 광주방문은 물론 직항로를 통해 광주에 도착하는 것도 광주공항 개항 이후 5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공항 측은 '긴장의 끈'을 바짝 죄며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항 건교부 출장소는 최근 국경일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문제 등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북측 인사가 도착하는 날에는 시민 2천여명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측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인파에 따른 돌발상황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 광주지사 측도 인터뷰를 위한 귀빈실 개방, 행사 차량 별도 운행, 안내데스크 지원 문제 등 다각적인 준비상황 점검에 골몰하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광주공항에 북측 인사가 오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북측 인사를 맞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연예자 동원... 대주 피오레 1,300여부지 총 353명 353부지 문의 (062)366-4220

## 전남대 친환경 미생물제제 북한에 240포대 지원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이 개발한 키틴분해 미생물제제가 북한에 지원된다.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과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전남대 본부 앞에서 지원물자 환송식 행사를 갖고, 키틴분해 미생물제제 240포대와 온실 자재 등을 트럭에 실어 남포함으로 보낼 예정이다.

북한은 지원받은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 평양시 남새공급소 내 비닐온실 3동과 평양 농업과학원 비농사 시범 단지 내 1ha의 논 등지에서 시범 재배에 들어갈 계획이다.

비닐온실에서는 키틴분해 미생물 제제 농법과 일반 농법을 비교하며 벨론·배추·대파가 재배되고, 비농사 시범단지에서는 벼·감자·배·사과가 시범 재배된다.

시범재배가 성공할 경우 북한의 친환경 농업에 활로를 열어주고 발자국을 위주의 농법을 개선해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의 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토양미생물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등 대규모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남대 김길용 교수가 개발한 키틴분해 미생물제제는 토마토·배추·버섯만 아니라 무농약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복숭아·배 등 과수 작물도 무농약 재배에 성공해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지평을 열고 있다.



민중화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마련한 인권 사진전이 9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 '6·15 대축전' 해외동포 대표단 146명 확정

오는 14~17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해외대표단 규모가 총 146명으로 확정됐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민중통신'이 9일 전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해외 대표단은

## 공짜 오락 즐긴 오락기 판매업자 달미

○...실을 연결한 1만원권을 이용해 성인 오락실에서 '공짜' 오락을 즐긴 성인오락기 판매업자 2명이 경찰에 달미.

○9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모(41·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씨 등 2명은 지난 8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신안동 0성인오락실에서 실을 연결한 1만원권을 오락기 지폐 투입구에 넣은 뒤, 사이버머니가 충전되면 실을 잡아당겨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20여년간 오락을 했다던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성인오락실에 오락기를 판매하던 사람들로 오락기의 구조를 잘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